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동로[†] · 백현기^{**} · 강정화^{**}

A Study of the Key Factors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Dong-Ro Shin[†] · Hyuen-Gi Baek^{**} · Jung-Hwa Ka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raw some suggestions for Internet Policy by using empirical analyses of key factors in Internet addiction in youths. Internet addiction in youths is perceived as a current and significant issue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have been explored and analysed empirically of its hypothetical relationships by using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s a result, a few key factors that suggest a strong relationship to Internet addiction in youths have been drawn: subjects' personality,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factor.

Particularly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and specifically the duration of time spent online causes the phenomenon of the Internet addiction. This study shows, however, the subjects' personality and communication factor have the most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to Internet addiction. In other word, the Internet addiction has been changing with the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factors drawn in this study, which are subjects' personality,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factor. Therefore, Internet addiction should not be merely treated as the isolated problem of the Internet itself;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various dimensions of society, economy, culture etc. Furthermore, some alternatives to deal with the Internet addiction should be found in various approaches.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EM, the youth, communication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논문접수 : 2008년 8월 11일, 심사완료 : 2008년 9월 5일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지원연구비 IR2007-XX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00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443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는 만 6세 이상 인구의 75.5%에 해당된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94%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연령대별로 40대 77.8%, 50대 45.6%, 60대 이상은 17.4%이다[38].

다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17.2%는 하루 평균 7시간 30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세 번의 일상 활동 중에서 한 번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을 수행할 만큼 인터넷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43]. 인터넷은 방송, 통신,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미디어이다[45].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면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호교류 통로 그리고 방대한 콘텐츠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많은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बैं킹은 전통적 거래방식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생활의 효율성과 편리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학교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되어 인터넷을 통해 게임, 채팅, 음란물 접촉 등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력저하, 두통, 불면, 식욕부진, 근육 긴장,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의 건강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현실세계의 친밀한 인간관계보다는 사이버공간상에서의 가상관계에 몰두로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템 갈취나 실제 보복 등으로 폭력과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58]이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작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과 [23]등에 의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밝혀진 요인이라 할

지라도 연구결과가 다르며 상호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시도된바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개념과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67]은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문제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즉,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현대사회의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하나인 인터넷 중독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 산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때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특성,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그러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환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변인과 인터넷 사용변인, 그리고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자녀관계 변인도 함께 조사·검증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독적 인터넷 사용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8]은 체계적 관점을 취하는 가족의 기본 가정에서 원인과 결과는 상호교환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모든 인간행동은 한가지의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의 결과라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현상을 심각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학교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에 포함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과 경로(paths)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어떤 특별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과도한 쾌락의 추구로써 중독 물질이 없이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에의 의존을 말한다. 중독의 일반적인 징후는 우선 '특정물질, 관계 또는 행동에 몰두' 하게 되고, '특정 물질의 이용 또는 행동유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하게 되며, '부정적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질의 이용 또는 관련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56]. 하지만 현재 중독의 의미는 단지 물질적 남용을 의미하던 것으로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인 형태를 지적하는 용어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약물 사용 중독과 유사한 급단현상이나 내성 증상을 나타내며, 일상생활의 분명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라고 설명한다[27].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58]로 그는 처음에는 물질남용 장애의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을 고안했다. [58]은 더 많은 인터넷을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운동성 초조와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또는 백일몽)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급단',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손상될 때'를 인터넷 중독장애(IAD)라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증의 경우와 같이 학업적, 직업적,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한다[51].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작된 인터넷 사용 행동이 점차 사용시간이 증가되어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지속하게 되고, 중단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불만족감을 초래하여 분명하게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부적응적인 인터넷 사용 행동이 지속되고 있을 때" 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58]은 과도한 인터넷사용을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이라 일컫고,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적 준거)의 약물남용 장애의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증의 진단준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병리적인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면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중독 장애로 분류하기 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설명하였다[28](이형초, 2005, 개인용).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인터넷 중독 척도를 만든 [68]은 1996년에 DSM-IV에서 병적인 도박의 기준을 적용하여 8개의 기준 중 5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의존자(dependent)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존재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기보다는, 대인간 상호작용을 주로 하게 되는 인터넷의 특정 서비스에 몰입하게 될 때 중독적인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많은 인터넷 중독 자들과의 면접과 심리치료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이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대인지각 및 관계형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60]과 [61]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독 될 수 있음을 보여,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중독의 현상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

2.2.1 개인적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적 요인 변인은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교생활 만족도이다. 학습동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70]은 동기란 사람의 활동을 자극하고 방향을 유지하게 하는 내적 상태 및 과정이라고 하였고, [64]는 동기를 유기체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보았으며, [66]은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 곧 동기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동기는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향하여 설정된 개인의 에너지와 관련되며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며, 집중시키는 것으로 각 개인 내에 있는 내부적 요인이다. [52]는 학습동기를 학습의 경향성 또는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46]은 학습의 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효과로서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어진 학습 과제에 대해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으로서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4]은 태도란 경험을 통해서 조직된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인 바, 이는 관련된 모든 대상 및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며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았고, [62]는 태도란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사물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갖는 찬동 혹은 반대의 경향으로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태도라는 용어 속에 감정과 신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70]은 태도를 학습된 것으로써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는 경향인데 사람은 이 경향에 의해서 인물, 사건, 상황을 특정한 양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57]은 태도란 어떤 유형의 사물, 사람 또는 사태에 대한 개인의 행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습득된 내적 상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때 태도란 당면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비상태이며, 그것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또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 장면에서 학습태도는 다른 일반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습된 것이다. 즉, 학교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여러 교과목을 학습하면서 학습과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학습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서 학습에 대해 나타내는 일관성 있는 경향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학습태도의 형성에 관한 학자의 견해를 보면 [50]은 학교 학습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57]은 어떤 유형의 사물, 사람 또는 사태에 대한 개인의 행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습득된 내적 상태라 하였으며, [31]은 정의적 행동 특성을 학교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변화 수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는 학습태도를 학습동기 요인, 학습기술 요인, 환경과 능력 및 정서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는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한다[1]. [33]은 학교생활 만족을 학교 적응의 개념으로 정의 하고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관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21]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적응'의 개념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0]은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아동들이 교사, 또래집단과 인관관계를 맺으며 교육활동을 하는데 충분한가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였으며, [22]는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37]은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기타 행사 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였다. [6]은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견지 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 정도' 라고 하였으며, [29]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전반에 대하여 갖는 선호 감정으로서,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 경험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느낌이나 태도의 정도' 라고 하였다. [34]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주관적인 감정이다'라고 개념을 규정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만족이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생이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 정도' 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2.2 인터넷사용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 사용 변인은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상 친구 수이다. 인터넷 사용기간은 선행연구 중 [28]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10], [17], [18]의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3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인터넷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4]의 연구에서 일상생활과 인터넷을 통한 교우관계를 비교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친구의 수가 일상생활의 친구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연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1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친구 수를 나타냈다.

또한, [39]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늦은 시간에 이용 할수록 중독적인 사용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중독적인사용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유형은 온라인 게임과 대화방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6]은 인터넷 사용시간과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사용 경험이 더 많았으며, [27]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인터넷 이용 목적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42]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정서, 평가, 물질적 지지에서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친구의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나타났으며, 가상공간에서의 대인 관계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나타났으며, 가상공간의 대인관계 효능감보다 현실 공간의 대인관계 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사용 유형을 변수로 한 [41]의 연구에서는 사용 시간은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터넷 이용 유형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2.2.3 의사소통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요인 변인은 효율성, 만족도, 충분도이다. 효율적 의사소통이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공감적,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가진 의사소통 유형이며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적 가족은 명명한 의사소통 방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세대간의 차이를 좁혀주고 물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며, 원만한 부모, 자녀 관계를 갖도록 도와준다[12].

의사소통만족도는 구성원들간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개인적 만족과 충분으로, 조직의 제반 의사소통 특징에 관한 포괄적인 정서적 반응이며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다[55].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만족도 및 충분

도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25]. 그리고 [30]은 의사소통내용에 만족하다고 느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서 또 하나의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 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36]. [53]에 의하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따뜻하고 수용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으며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과 인간 행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반면, 자신의 부모가 비 반응적이며 비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우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렇듯,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자녀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정이 제공하는 환경은 가정의 외형적인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효율성, 부모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및 충분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한편, [3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효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만족도에 관해서 [11]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직업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효율성에 관하여 [12]는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만족도에 관하여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녀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2.2.4 심리적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요인 변인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우울이다. 자기통제(self-control)는 자신이 자신의 인지·정서·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을 커다란 보상을 얻기 위해 혐오적인 자극을 견뎌내는 것으로[5],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

을 주는 것(자기 강화와 같은)을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으로[20], 반복적인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했다[15]. [63]은 자기 통제를 선택의 상황으로 설명하며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고 주어지는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은 “지연된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자신의 인지·정서·행동을 조절하여 일시적인 충동,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회피하고 장기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 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다[54].

자아존중감의 특징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평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며 자주 불안を 느끼고 우울해지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느끼지 못하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다[7].

자아존중감이 생기려면,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기이상(Self-ideals)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실제의 자신과 이상적 자기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목표와 이상적 자기를 통합한다[13].

우울(depression)은 울적한 기분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슬픔, 좌절감, 죄책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서적 증상과 의욕저하,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 곤란, 유희부단한 행동 등의 인지적, 행동적 증상들을 보인다. [69]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연구 중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집중연구 했는데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우울 수준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2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인터넷 몰입자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9]는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우울이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익명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가상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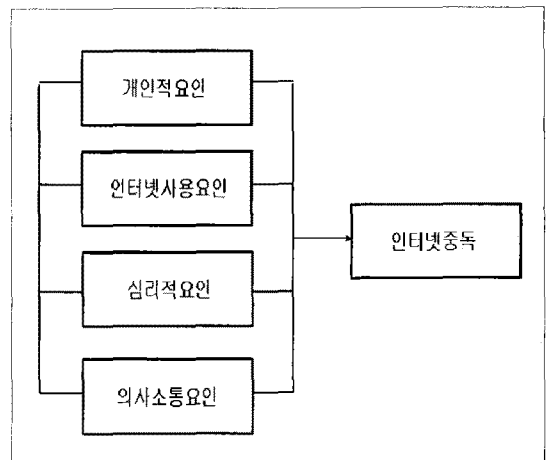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들로부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학자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사례의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인터넷 중독 현상을 밝히는 공통적인 분석요인으로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통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 현상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통요인은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학교 청소년의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통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학교 청소년의 개인적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학교 청소년의 의사소통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학교 청소년의 심리적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는 진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남녀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중학교의 경우 1개의 남자학교, 1개의 여자학교를 선정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남자학교 1개교와 여자학교 1개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학교에서는 각각 1, 2, 3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조사는 2008년도 5월에 실시했으며,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48명이 최종 조사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4 변인설정

본 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각 척도들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작적 의미를 갖는다.

3.4.1 내생변인 측정척도

본 연구는 기존연구 및 이론에 대한 고찰 등 문헌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기존이론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 <표 1>과 같은 분석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학교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의사소통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한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효율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만족도 및 충분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효율성은 [47]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59]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참고로 [15]가 보다 쉽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65]의 Self 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49]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표 1> 측정척도

분석요인	측정항목
개인적요인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인터넷사용요인	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상 친구 수
의사소통요인	효율성, 만족도, 충분도
심리적요인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우울

3.4.2 인터넷 중독 측정 척도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52]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표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진단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로 [69]의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40점이 넘을 경우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0점에서 40점 미만까지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자로, 40점에서 69점까지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초기 인터넷 중독자로, 70점 이상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했다. 따라서 40점 이상을 중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3.5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Cronbach's Alpha(α)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고,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평가를 통해 측정척도의 항목을 조사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척도의 단일차원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모형변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킨 다음, 주성분분석으로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최고 0.876부터 최저 0.517로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 부하량 고려수준을 낮추는 것을 감안해도 유의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인 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유치와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변수의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2>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수군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llett의 구상검정치(sphericity)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0.751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 4>와 같이 $\chi^2=119.96$, $\chi^2/df=1.79$, RMR=0.06, GFI=0.94, AGFI=0.90, IFI=0.95, TLI=0.92, CFI=0.94로 나타나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하면 요인분석의 표본은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α) Test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론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Cronbach's α
개인적요인	학습동기	.787	.674
	학교생활 만족도	.806	
	학습태도	.517	
인터넷 사용요인	인터넷 사용기간	.824	.641
	인터넷 사용시간	.898	
	인터넷상 친구 수	.902	
의사소통 요인	효율성	.824	.667
	만족도	.873	
	충분도	.586	
심리적요인	자기통제력	.876	.667
	자아존중감	.871	
	우울	.528	

당초 변수의 구성 설문항목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α) 계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이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12.0과 Amos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용 실태 및 특성, 인터넷 중독 수준을 파악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나회학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실태 및 특성, 중독 실태,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변수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α)계수를 산출하고,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변수의 타당도와 측정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5.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정을 위하여 Amos5.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3].

3.7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수

상관관계분석은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즉 상호 관련성 여부 및 관련성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13개 연구 변인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3.8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인과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기 이전에 측정변수의 편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나,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별 단일 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AMOS 5.0패키지를 이용,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3> 이론편인 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학습동기	1.000												
2.학교생활 만족도	0.379	1.000											
3.학업태도	0.131	0.230	1.000										
4.인터넷 사용기간	0.075	0.031	0.019	1.000									
5.인터넷사용시간	-0.012	0.066	0.157	0.640	1.000								
6.인터넷상 친구 수	-0.062	0.071	0.152	0.615	0.769	1.000							
7.효율성	0.071	0.039	0.260	0.110	0.233	0.218	1.000						
8.만족도	0.022	0.078	0.167	0.040	0.190	0.149	0.699	1.000					
9.충분도	0.105	0.078	0.149	0.035	0.026	-0.066	0.221	0.335	1.000				
10.자기통제력	0.053	0.047	-0.048	0.095	0.079	-0.023	0.036	-0.017	0.152	1.000			
11.자아존중감	0.020	0.060	-0.020	0.121	0.110	0.060	0.071	0.005	0.168	0.661	1.000		
12.우울	0.137	0.001	-0.036	0.121	0.069	0.047	-0.095	-0.167	0.042	0.278	0.316	1.000	
13.인터넷중독	0.158	0.173	0.065	0.178	0.129	0.168	-0.053	-0.091	0.086	0.156	0.192	0.276	1.00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계수	SE	CR	P
개인적요인				
개인적->학습동기	1.00	-	-	-
개인적->학교생활 만족도	1.42	0.40	3.52	0.00
개인적->학업태도	0.61	0.18	3.43	0.00
인터넷사용요인				
인터넷사용->인터넷사용기간	1.00	-	-	-
인터넷사용->인터넷사용시간	1.26	0.10	12.37	0.00
인터넷사용->인터넷상 친구 수	1.25	0.10	12.31	0.00
의사소통요인				
의사소통->효율성	1.00	-	-	-
의사소통->만족도	1.19	0.17	6.83	0.00
의사소통->충분도	0.55	0.10	5.31	0.00
심리적요인				
심리적->효율성	1.00	-	-	-
심리적->만족도	1.29	0.19	6.90	0.00
심리적->충분도	0.43	0.08	5.31	0.00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1	1.00	-	-	-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2	0.80	0.16	4.90	0.00

$\chi^2=119.96$, $\chi^2/df=1.79$, RMR=0.06, GFI=0.94, AGFI=0.90, IFI=0.95, TLI=0.92, CFI=0.94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 248명 중 남학생이 127명으로 51.2%를, 여학생이 121명으로 48.8%를 차지해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비슷한 수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

은 14세에서 19세에 각 연령별로 유사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4.2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술통계

인터넷 중독의 분포 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을 비중독, 과다사용, 중독군으로 나누어 보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 비중독군이라 할 수 있는 20점에서 39점까지는 68명(27.5%)이, 과다사용군이라 할 수 있는 40점부

터 69점까지는 167명(67.3%)이, 그리고 인터넷 중독군이라 할 수 있는 70점 이상인 청소년은 1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중독의 분포

구분	빈도	%
비중독군(20-39점)	68	27.5
과다사용군(40-69점)	167	67.3
중독군(70-100점)	13	5.2
총	248	100

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인과분석을 통하여 요인분석과 회귀 분석을 개선적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위반추정치와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보아야 한다. 위반추정치(offending estimate)의 경우, 일반적으로 ① 표준화계수가 1.0에 근접하거나 혹은 1.0을 초과하거나, ② 추정계수에 대해 매우 큰 표준 오차를 보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반추정치가 발견되면 모형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다시 추정해야 한다[19].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결과 위반추정치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반추정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overall fit)를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모형에서 가설을 검증하려면 모형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검증이나 다양한 지수가 사용된다.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으로서는 모형의 적합도는 χ^2 ,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FI), 원소간 평균차이(RMSR: Root Mean Square Residual), 근사평균 자승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초기모형의 적합성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수정을 실시한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경우, AMOS 자료가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초기모형을 수정한다[3].

4.4 모형검증

본 연구의 제안모형(Overall Model)에 대하여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최종분석 연구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33.87$, p값=0.000, 자유도=73, GFI(기초적합지수)=0.93, AGFI(조정적합지수)=0.90, RMR(원소간 평균차이)=0.07을 갖는 최적모형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카이자승값과 자유도, p값, RMR만 볼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모형과 분석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3]. 그렇다면 다른 적합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GFI(기초적합지수)가 거의 1에 가깝고, AGFI(조정적합지수)가 0.90로 요구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적합지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6>은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모형의 적합도 평가

	χ^2	자유도	p	$\chi^2/d.f.$	RMR	GFI	AGFI	NFI	TLI	CFI
평가기준	-	-	-	≤3.0	≤0.05	≥0.9	≥0.9	≥0.9	≥0.9	≥0.9
분석결과	133.87	73	0.00	1.83	0.07	0.93	0.90	0.87	0.92	0.94

4.5 모형검증 결과

<표 7>은 가설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MOS 5.0을 이용하여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이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P개의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C.R.(Critical Ratio: 경로계수/표준오차)을 회귀분석의 t값으로 생각하고 C.R. ≥ 1.96=Z(0.025)일때 경로계수는 유의하고, 대체가설을 채택한다[2]. 또한, 유의확률 p=0.10을 기준으로 유의한 경우에도 대체가설을 채택한다.

〈표 7〉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결과
가설1	개인적요인 -->인터넷중독	0.39	0.29	0.13	2.92	0.00	채택
가설2	인터넷사용요인 -->인터넷중독	0.15	0.18	0.07	2.36	0.02	채택
가설3	심리적요인 -->인터넷중독	-0.15	-0.15	0.07	-2.14	0.03	채택
가설4	의사소통요인 -->인터넷중독	0.27	0.27	0.08	3.37	0.00	채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연구 가설에 대한 채택여부를 <표 7>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개인적 요인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p < 0.00$ 유의수준에서 회귀추정치(Regression Estimate)는 0.39,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s)는 0.13, 결정율(C.R.; Critical Ratio)은 2.92,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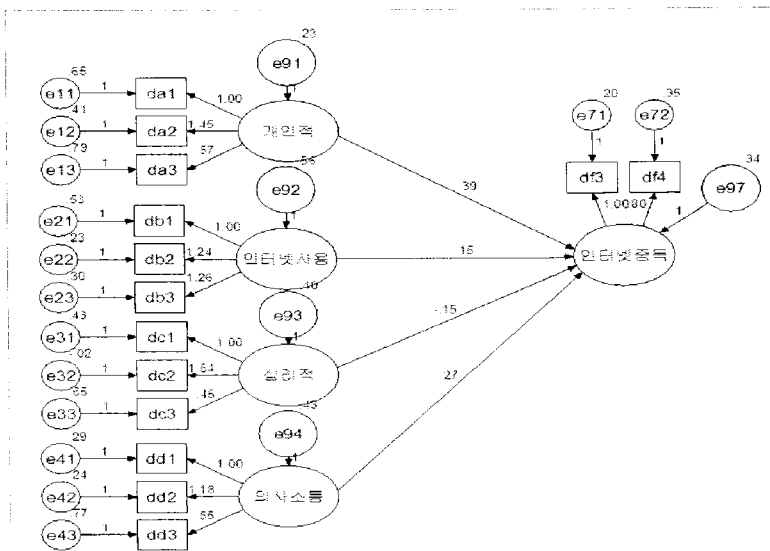
둘째, 인터넷사용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인터넷사용 요인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p < 0.02$ 유의수준에서 회귀추정치(Regression Estimate)는 0.15,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s)는 0.18, 결정율(C.R.; Critical Ratio)은 2.36, 유의확률 p값이 0.02로 인터넷사용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한 결과는 심리적 요인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p < 0.03$ 유의수준에서 회귀추정치(Regression Estimate)는 -0.15,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s)는 0.07, 결정율(C.R.; Critical Ratio)은 -2.14, 유의확률 p값이 0.03으로 심리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사소통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의사소통 요인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p < 0.00$ 유의수준에서 회귀추정치(Regression Estimate)는 0.27,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s)는 0.08, 결정율(C.R.; Critical Ratio)은 3.37,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의사소통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앞의 <그림 2>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 전체적 구조모형 검증 결과

4.6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가설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통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인터넷 중독의 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인터넷 사용기간과 사용시간 등 인터넷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중독에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접근이 인터넷사용 요인이 중심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사용 시설의 대처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안들이 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인터넷 중독의 다차원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개인적, 심리적, 의사소통 차원의 인터넷 중독 치료 전략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요인은 인터넷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보다 학교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의사소통요인이 더욱 심하게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인터넷 중독 문제와 발생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치유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통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들 중 인터넷사용 요인 즉, 인터넷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에 의하여 인터넷 중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인터넷 중독의 의사소통요인 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요인, 인터넷사용요인, 심리적요인, 의사소

통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을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차원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인터넷 중독의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있어서 크게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의 방향과 전략 측면,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방안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건전성 및 개인의 심리적 건강,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건전동기의 형성이 있을 때,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 예방될 수 있다. 즉, 제안된 모델에 따르면, 가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터넷 사용기회 자체를 낮은 수준으로 조절할 때 중독적인 사용조절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원격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줄이고 건전사용동기를 키우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대책은 학교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직업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PC방의 단골사용자 등의 표적표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개인별 사용욕구에 따라 무제한으로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성인 및 청소년 사용자들의 경우 심리적인 특성이 취약함과 동시에 인구사회학적인 제반 특성에서도 일반적인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한 양상을 드러냈다. 인터넷 과다사용이 곧 중독의 문제는 아니지만,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이 클 경우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적인 개입활동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PC방 업주들의 협력도 절실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그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등이다.

참 고 문 헌

[1] 교육학대사전(200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 권보연(1999).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계수.(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시리즈.

[4] 김기석(1985). 학습습관 검사 해설 및 시행 규칙.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서비스.

[5] 김남숙(200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미경(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김인희(1994).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종원(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주연(2002).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경향과 관련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희경(2002).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남영옥, 이상준(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15]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아동학회지. 21(1)

[17] 문정혜(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20]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안영복(1984). 정서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 유상구(2000).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지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3]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이곤섭(2001). 컴퓨터 중독과 충동성,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이선경(200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우울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형초(2005).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제언 인제경영. 2005년. 10월호.

[29] 이혜진(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환경 요인과의 관계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정원식(1976). 교육환경론. 교육과학신서 8. 서울: 교육출판사.

[32] 조아미(1998). 성별 및 컴퓨터 사용경험이 컴퓨터 불안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36(4)

[33]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4] 최경소(2003).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5] 최민정(2001).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형과의 관계. 중앙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최인경(2001).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

- 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최종학(2001). 중학교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형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부(2007).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39]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한주희(2000). 인간관계 집단상당이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1] 홍경희(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황주성, 유지연 (2005). 인터넷의 일상화 지표 개발 및 실태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4] Allport, G. (1935). *Pattern &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45] Argyle, K., & Shields, R.(1996). "Is there a body in the net?". In R. Shields(ed.), *Culture of internet: Virtual spaces, real histories, living Bodies*, pp.58-69. London: Sage
- [46] Ausubel, D. P. (1969).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47] Barnes, H.I., & Olson, D.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H. Olson, H.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pp.55-70). St.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48] Beavers, W. R.(1996). Measuring family therapy outcome in a clinical setting. *Family Process*, 35(3), 347-361
- [49] Beck A.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Raven Press.
- [50] Bloom, B.(1976). *Human characteristics &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 [51]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llel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 882.
- [52] Bruner, J. S.(1963). Needed : A Theory of instruction. *Educational Leadership*, 20. May. p.111-141.
- [53]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p.644-663.
- [54]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 [55] Crino, M. D., & White, M. (1981). "Satisfaction in Communication: An Examination of the Downs-Hazen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49, 831-838.
- [56] Egger, O.(1996). Internet behaviour and addiction. Unpublished thesis,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 [57] Gagne, R. M. (1985).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58] Goldberg(1995).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ulter/psyber/suppor tgp.html>.
- [59]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60] Griffiths, M.(1995).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76, 14-19.
- [61] Griffiths, M.(2000)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study evidenc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2) : 211.
- [62] Guilford, J. P. (1975). *Six factors of behavioral cognition: Understanding*
- [63] Louge. A. W.(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64] Morgan, C. T., & King, R. A. (1971).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65]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66] Shaffer, L. F., & Shoben, E. J. (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oin.
- [67]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 [68]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 [69]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70] Zanden, J. W. V. (1980). *Educational Psychology in theory and practice (1sted)*. New York: Random House. other people.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12(4).



신 동 로

1973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97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1987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urr. & Instruction
 현재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과정, 교육방법,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E-mail : shdoro@chonbuk.ac.kr



백현기

2002년 우석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2006년 전북대학교 (교육학박사)
 현재 :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
 구원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USN,
 u-class, u-city
 E-mail : teach21@paran.com



강정화

1997 University of Wales
 경영학과(학사)
 2002 University of Wales
 컴퓨터과학(석사)
 2007~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002~2003 Shelter Cymru
 2005~2006 NZIS 기획이사
 관심분야 : e-Learning, 몰입경험(Flow), 영어교육
 E-mail : kangjh_uk@nate.com